

### 百濟 石製相輪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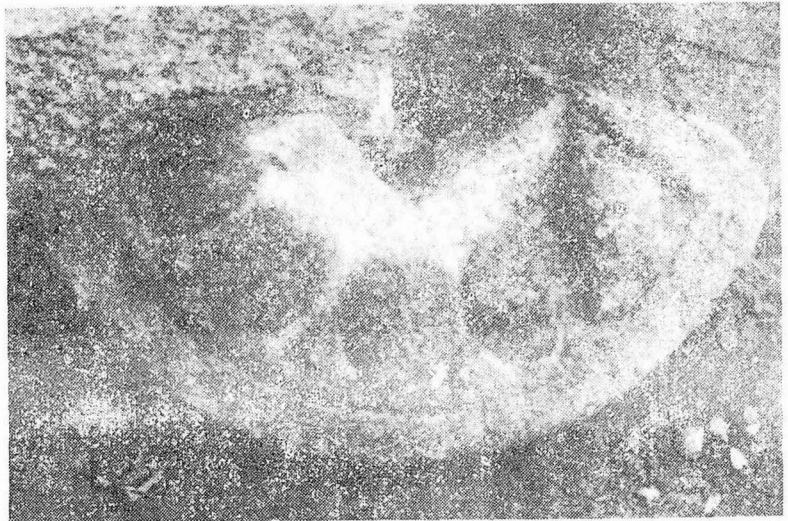
黃 壽 永

(一)

扶餘邑南의 百濟 定林寺址五層石塔의 相輪部에 대하여서는 過去 아무런 資料發見이 없었고 다만 塔頂에 남아있는 露盤伏鉢形一石(註二)과 그것을 貫通하는 深孔에서 金屬製 擦柱—— 나아가 金屬製相輪이 推定되어 왔었다. 筆者 또한 이 石塔뿐 아니라 또 하나의 百濟建立인 全北 益山 彌勒寺址石塔(註二)과 더불어 그 周邊寺址에서 아무런 相輪部 殘石이 發見된바 없어 모두 金屬製의 것으로 막연하게 생각하여 왔었다. 그런데 이번 奉命이 이 扶餘五層石塔의 相輪部材(九輪)로 推定되는 작은 一片의 斷石이 이 寺址附近에서 發見되므로써 이같은 既往의 推定을 뒤집었을뿐 아니라 이 塔 相輪에 대한 새로운 考察을 可能케 하여 주었다.

(二)

지난 八月十二日의 일이다. 筆者는 마침 扶餘에 滯留하고 있었는데 百濟蓮花紋 調査次 이곳에 내려온 金和英嬢으로 하여금 洪再善君과 같이 邑內 東南里 李夕湖氏宅을 찾아 同氏蒐集品을 調査케 한바 있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와 蓮花紋을 새긴 圓形有孔石片이 있다는 말을 듣고 筆



郷校守直인 池氏談에 의하면 四年前 專賣人 蔘工場 新築 當時 지금의 郷校 正門서 道路 건너 마루 보이는 洋灰담장 바로 넘어에서 下水道工事 때 地下約 四、五尺 되는 곳에서 池氏에 의하여 發見되어 그間 同氏宅 庭園에서 保管하여 오던 것이라 하며 그것이 最近 李氏의 着眼한바 되어 讓渡케 된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 發見地點은 定林寺址 五層石塔에서 東北方으로 約 一百m 되는 距離에 있다.

(三)

위와 같은 發見事由에서 미루어 이 石片이 定林寺址와 有關한 것임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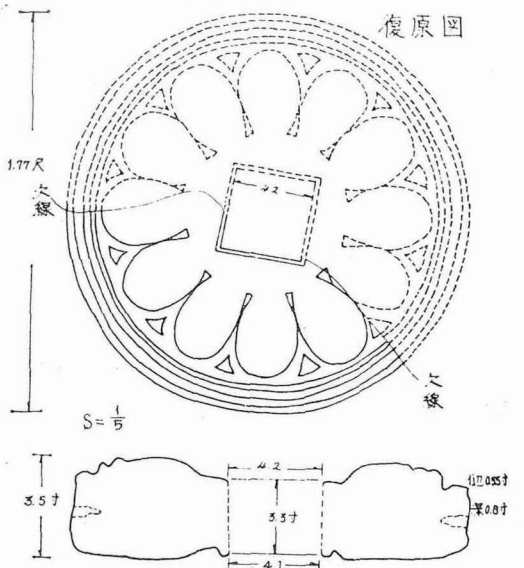
者와 洪思俊館長은 各 李氏宅을 찾아 庭園에 놓여있는 이 石片을 볼 수 있었다 그리하여 이것이 百濟作品이며 定林寺址 附近民家에서 最近에 入手된 事實을 알았으며 동시에 相輪部材로 意見을 같이 하므로써 李氏同意를 얻어 博物館으로 옮길 수 있었다. 또 翌日 洪館長과筆者는 原所藏者인 池興龍氏를 定林寺址 東方인 扶餘郷校에 부속된 同氏宅(東南里 四五二番地)으로 찾아서 發見經緯를 들을 수가 있었다.

를 립었다. 그런데 이 石材는 現在 破片으로서 原形의 約二分一밖에 아니 되나 이것만으로도 復元이 可能하다. 원래 圓形을 이루는 花崗石一枚 石造로서 그 中央에 方孔이 돌리고 그 둘레에는 이 方孔의 各邊을 따라 蓮花 素瓣紋이 各二葉式 方孔隅角에 各一葉式 合計十二瓣 單蓮이 周回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이 形式은 마치 百濟의 蓮花文瓦當 특히 極瓦當을 石材로 옮긴 것과도 같은데 그것과의 相異點은 子房의 圓圈帶가 없는 것과 周緣에 좁은 幅의 輪帶가 돌려 있는 點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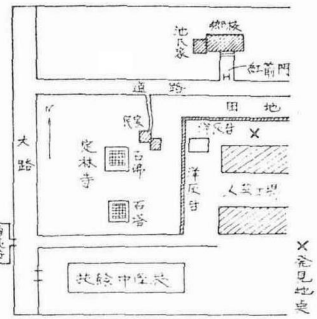
圖面에서 보는 바와 같이 現在 中央方孔의 兩邊이 남았고 蓮瓣은 五葉이 남았는데 方孔은 밑으로 약간 좁아들었으며 蓮花紋은 橢圓形 厚肉으로 尖端이 反轉되어 있어 百濟 蓮花紋에서 類型을 찾을 수가 있으나 十二瓣이나 配列함을 따라 그 形狀은 작아졌다. 蓮瓣外緣에서 帶條一線이 돌러지고 周緣은 平坦할 뿐 瓦當에서 보는 바와 같은 突起를 이루지는 않았다. 側面은 斜面을 이루었는데 그 中央에 (方孔의 對角線 위치) 작은 구멍이 뚫려 있어 원래는 四개이나 現在 두 곳만이 남아 있다. (그중 한 곳에는 鐵釘片이 남아 있다) 이것은 風鐸을 달기 위한 裝置로 보인다. 裏面은 偏平하지 못

하여 中央部가 龜腹形으로 다소 隆起되 면서 周緣을 향하여 斜面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方孔을 둘러서 등글게 홈이 파져 있고 이 홈에서 다시 한 줄의 홈이 分岐되어 파져 있는 바 이들은 排水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形態에서 미루어 이 圓形蓮



石製相輪并出土附近圖



花紋石은 원래 紋樣이 있는 面을 아래로 삼고 塔頭높이 꽃아 있어 地上에서 올려 볼때 下面으로 蓮花紋이 보이도록 되어있었을 것이다. 또 이같은 相輪은 결코 一個뿐이 아니라 三乃至 五個石 또는 그 以上으로 보이며 上層함을 따라 金屬製에 있어서와 같이 그 크기에 또 遞減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같은 相輪石 사이에는 다시 圓筒形石(擦)을 끼였을 것이며 이들을 貫通하여서는 金屬製擦柱를 使用하였을 것이다. 다만 이곳에서 하나 注目되는 것은 이 相輪石의 中央孔이 다른 類例에서와 같이 圓孔이 아니고 方孔이라는 點이다. 이같은 方孔은 百濟造形에서의 通式이기는 하나 그 固定方式이나 또는 塔自體의 擦柱(方形?)形式에 特異點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四)

우리나라 三國期 塔婆에서 石製相輪이 發見된 것은 筆者의 管見으로서는 이번이 第二次라 하겠는데 그 最初로서는 昨秋 扶餘郡石城面臨江寺址에서 出土된 有孔圓形石(註三)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 遺品은 원래 木塔의 것으로 추정되었으므로 이번의 新例로서 三國期石塔에 있어서서는 最初의 發見을 삼을 수가 있을가 한다. 이같은 石塔에 있어서의 石製相輪의 裝置는 新羅統一期에 들어서 現存하는 遺構에서 약간의 類例를 들 수 있다. 예컨대 年代는 降下하나 慶州 佛國寺 多寶塔, 聞慶 鳳岩寺 三層塔, 南原百丈庵三層塔, 同實相寺三層雙塔, 康津 寶林寺三層雙塔, 陝川海印寺九光樓前三層塔, 八公山 桐華寺金堂庵東塔 등이 있고 또 高麗에 들어와서는 平昌月精寺八角九層塔, 金剛山正陽寺三層塔(古蹟圖譜四卷四二八葉 相輪에 蓮花紋과 鈴鐸孔이 보인다) 등이 있다(註四)

또 上代의 金屬製 相輪에 있어서는 現存最古遺品으로서 漆谷 松林寺 五層塔에 남아있는 新羅創建當時의 가장 貴重한 遺品이 國內唯一의 上

古例라 하겠는데 相輪數는 三個로서 鐵製圓環을 이루었는데 中央에 圓孔이 있고 그 周圍에 八葉의 蓮花紋이 둘러 있어 이 百濟石製品과 매우 類似함이 注目된다. 또 李朝仁祖代의 作品인 報恩 法住寺五層木塔에서 五個의 金屬相輪을 볼 수가 있음은 비록 近世의 作品이나 貴重하다고 하겠다. 그런데 이와 關聯하여서 日本에 남아 있는 世界最古의 木塔인 法隆寺五層塔에서의 金屬製九輪(註五)(이것만은 創建當時의 것으로 보인다)이 注目되는 바인데 이것 또한 中央圓孔을 돌아서 八瓣 蓮花紋이 둘러 있는 點이다. 이와같이 材料의 差別과 塔婆의 種類에도 불구하고 古代 相輪樣式에서 類似點을 볼 수 있는 것은 매우 興味로운 일이다. 특히 百濟와 日本 및 新羅 三國의 關係에 있어서 鍾盤博士(註六)의 渡去 또는 皇龍寺木塔建立에 있어서 阿非知의 招聘事實(註七) 등 文獻에서 미루어 보더라도 塔婆造營 특히 塔頂의 相輪部樣式에 있어서 三國間의 交流事實이 實物로서도 충분한 뒷받침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日本에서는 奈良時代의 石製相輪(註八)이 奈良縣山村廢寺 등에서 發見되고 있는 事實도 注目할 만하다.

(五)

그러나 이와같이 우리나라에 있어서 가장 高古한 三國時代 石塔에서 石製相輪이 推定되었으므로 또 後代에 있어서도 石塔에서의 石製相輪이 하나의 傳統方式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例外가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慶州 皇福寺三層石塔에서 金屬製相輪(註九)이 推定된바 있으며 이보다 앞서서 七世紀後半 新羅統一直後의 慶州感恩寺 東西塔에서 筆者는 金屬相輪을 推定하고 있으며 또 慶州 淨慧寺十三層石塔에서도 金屬製이었음이 文獻에 傳하고 있다. 또 高麗初期의 建立인 서울시弘濟洞沙峴寺五層石塔(註十)에서도 筆者는 金屬相輪을 推定한바 있었고 李朝洛山寺石塔 또한 金屬製이다. 그러나 石塔에 있어서의 金屬製相輪은 도리어 石製에 비해 稀小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木塔 및 塔婆(註十一)에 있어서 는 도리어 金屬製가 通式이었던 것으로 생각되며 혹 그것을 固定시키기 위한 基部裝置(露盤等)에서 石製品이 使用되었을 뿐으로 생각된다. 이같은 우리나라 塔婆相輪에 대한 全般的考察은 매우 重要한 課題가 된다

고 하였는데 이것은 앞으로 다른 기회를 얻어야 하겠고 우선 이곳에서  
 是 現存最古의 遺品으로 推定되는 이 新出現의 一小斷石片을 紹介하면  
 그 收拾을 多幸으로 생각하는 바이다. 이 같은 石製相輪의 樣式이 또한  
 우리의 石塔發生의 事由와 그 始源樣式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百濟國에  
 서 木塔系樣式을 繼承하였을 것으로 생각함이 順理일 것이며 그러한 觀  
 點에서 이 新資料의 考察은 内外古代塔婆에서 先行하던 金屬製 相輪樣  
 式과도 比較되어야 할것을 거듭 말하여 두고저하는 바이다. 끝으로 이  
 遺物收拾에 配屬한 李夕湖 池與龍 兩氏와 扶餘博物館에 感謝하  
 는 바이다. (相輪直徑(復元)一·七七尺 方孔一邊四·二寸 厚三·五)

註一 이 露盤伏鉢形은 一石造(現在三個로 破壞되어 있음)로서 下幅一·  
 九尺 上幅〇·八五八尺 高一·四一尺 圓孔徑二·二九寸이며 구멍  
 의 現深二尺一寸이라는 바 이塔의 相輪이 石製라 한다면 그 固定方法  
 에 特別한 用意과 裝置가 있었을 것이다.

註二 彌勒寺 石塔에서 方形椽柱를 推定하고 相輪을 金屬製로 말한 것은  
 藤島亥治郎教授였다. (同氏著 朝鮮建築史論——益山彌勒寺條)

註三 中央에서 二片으로 分斷되었는데 高十一·五cm 徑十六cm 圓孔徑  
 三·二cm 周圍에 複瓣蓮花文를 사졌다. 후시 仰花石인가 한다.

註四 以上諸塔相輪은 古蹟圖譜 第四冊 및 文教部發行 國寶圖錄第五輯  
 石塔篇 參照

註五 天沼俊 一日本建築史圖錄第一卷三十八圖 相輪을 네 四個處에 風鐸  
 을 달았던 痕跡이 보인다 이 石製相輪과 同一하다.

註六 百濟威德王十五年(日本崇峻天皇元年) 鑪盤博士將德白味淳의 渡日을  
 말하는 바 그의 任務는 塔相輪製作으로 보인다.

註七 三國遺事 卷三 皇龍寺九層塔條 이塔高를 記하여 「鑪盤已上高四十  
 二尺 已下一百八十三尺」이라 하였는데 附點은 相輪高를 가르킨다.

註八 日本木塔에 사용되었던 奈良時代 石造相輪으로서는 奈良縣 山村  
 廢寺 和歌山縣 三栖村廢寺 兵庫縣 多田廢寺 등에서 九輪이 出土하고  
 있다. 그중 山村廢寺에서는 七個以上の 九輪(徑八〇cm)과 四個의  
 椽柱(徑三〇cm 厚四·五cm의 円筒으로 高四四~二六cm의 各種)과  
 「露盤」이 發見되고 있다.

第六卷 第八號 通卷六十一號

註九 杉山信三著「朝鮮의 石塔」  
 註十 拙稿「弘濟洞沙峴寺址五層石塔(郷土지술) 第十一號」  
 註十一 安東邑內의 埵塔 兩基에서 도 모두 金屬相輪의 存在를 傳하고 있  
 다. (永嘉誌參照)

〔附記〕(1) 新羅相輪樣式을 보이는 石彫品으로서는 慶州 栢栗寺 및 慶  
 博所藏의 塔彫方柱石(出稿「新羅柱塔片本誌五卷六·七號」) 및 慶  
 州 南山塔谷(慶州 南山의 佛蹟) 및 栢栗寺 磨崖塔形參照

(2) 二石塔相輪을 固定하기 위한 塔頂의 椽柱孔樣式으로는 圓  
 形이 通式이나 간혹 方孔을 볼수 있으니 上引한 서울市沙峴寺  
 址五層石塔이 그러하고 慶博所藏의 新羅屋蓋石에서도 볼 수 있  
 다. 埵塔에 있어서도 椽柱가 方形임은 松林寺塔의 경우가 그러하고 安  
 東新世洞塔 또는 同一直面塔에서 同一하였음을 推定할수 있다.

### 昌原佛谷寺 毘盧舍那佛

鄭 永 鎬

慶南昌原郡上南面大方里 飛音山 南麓에 南向하여 造營된 이 寺刹에는  
 一柱門 不二門 大雄  
 殿과 寮舍, 數棟의  
 附屬建物이 있는데  
 住持 林琥山(六一歲  
 氏)말에 依하면 이곳  
 一帶는 廢寺址였는  
 데 이 절은 約三〇  
 年 前에 세워진 바  
 라 한다. 以前에는  
 現大雄殿자리에 臺

